

천혜의 풍광 지키기... 몰라보게 깨끗해졌어요

■ 슬로시티 신안 증도 입장료 징수 한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오면 1000원 환불
무단 투기 사라져 2만 4000여 관광객 50t 수거



뻘어난 자연풍광과 느낌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가 입장료 징수 후 깨끗하게 변모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3월 증도대교 개통으로 80만명의 관광객이 증도를 찾아 생태계 훼손이 현실로 다가오며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성인 기준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나눠준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오면 1000원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입장료 징수 초반에는 관광객들이 "섬에 가는데 무슨 입장료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증도를 깨끗이 가꾸고 보호하자는 취지에 대부분 동감하며 협조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달동안 2만4000명의 관광객이 가져온 쓰레기는 50여t으로 증도면의 쓰레기 총 발생량 150t의 33%에 해당한다.

군은 입장료 징수 이전에는 가지고 간 음식을 먹은 후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빈 몸으로 섬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관광객 80% 정도가 쓰레기를 퇴거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한달동안 2만4000명에게 입장료 4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만원을 환불해줘 수입금은 3500만원에 이른다.

앞으로 군은 관광객이 뱉새나는 쓰레기를 차에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입장료 50%를 선환불해 줘 1000원씩만 받고 있다. 쓰레기는 자율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하고, 이를 위해 쓰레기 수집박스 10개를 주요 관광지에 배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우천

진도 청정 수산물 명품 만든다

김 등 가공시설 집중 투자
기업화로 국내외 판로 개척

진도군이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비교유 자산인 해양수산가공식품을 지역전략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

지 11개소에 1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집중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12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비 등 5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진도 청정 수산물의 명품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최근 의신면 일원에 11억원을 투입, 조미김을 가공할 수 있는 최첨단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준공했다. 군은 김 가공시설준공을 계기로 안정적인 김 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젊은 어업인들의 귀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 청정 수산물의 위생적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를 통해 국내외 판로확진과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기업화·규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우수영 '명량역사체험마당'

25일부터 9월까지

해남군은 오는 25일부터 우수영관광지 일원에서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연과 체험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2011 명량역사체험마당'을 개최한다. 체험마당 행사로 지역주민이 참여

해 만들어 가는 우수영 수문장 교대식과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우수영영감굴새공연 등이 우수영 수변무대와 성문 앞에서 열린다. 또 우수영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군거리로 '2011 명량역사체험마당'을 개최한다. 체험마당 행사로 지역주민이 참여

체험 등 저자거리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울돌목에서 뜰채로 막잡아 올린 송어와 해남 자색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막걸리, 빈대떡 등 조선시대 전통음식도 맛볼 수 있다. 이번 체험마당은 지역단체인 문내면 발전협의회, 문내면 농업경영인회, 문내면 농민회 등이 '명량역사체험마당 운영사업단'을 만들어 운영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활기찾는 목포 서남권유통센터

접근성 문제 해결 위해 진입로 개설 공사
상권 활성화 기대-상인들 입점 문의 쇄도

1년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서남권 유통센터(옛 광동상가)에 때아닌 봄바람이 불고 있다. 6월 들어 서면서 상인들의 입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목포시가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온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로 공사에 박차를 가한 것이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1일 도시개발 사업단에 따르면 총 사업비 34억(보상비 27억·공사비 7억)을 들여 남포 초등학교 4거리~

서남권 유통센터 간 진입로 140m를 기존 폭 8~10m에서 20m로 확·포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확보된 14억원의 예산으로 최대 난코스인 S자형태의 도로선형을 직선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 6월초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현재 S자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도로는 관광버스 등의 진입이 불가능해, 상인들은 '장사도 안 될 텐데 비싼 임대료까지 내면서 입점할 필요가 있는냐'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기피해 왔

다. 하지만 시가 도로 선형 개선사업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아쉽게도 S자 형태의 도로가 직선으로 바뀌면 관광버스 등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광버스 12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현재 조성돼 있어 공사만 마무리되면 상권 활성화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지난 2009년 7월 건여물 유통상인회(대표 김응만)와 입주협약

(MOU)을 체결해 놓은 상태여서 접근성 문제만 해결되면 유통센터 1·2층 23개 점포 가운데 대부분이 분양될 것으로 보여 시는 내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에 대해 정종득 시장은 "목포 종합수산물시장과 연계된 수산물 집산지로 원도심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갈·건여물 타운이 형성돼, 목포를 방문한 외지 관광객들이 꼭 이곳을 거쳐 가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완도 신지면에

항일운동 전시관

독립운동 기록물 등 전시

완도군은 신지면 대곡리 항일운동 기념공원에 136㎡ 규모의 '항일운동 전시관'을 지었다. 군은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1만4282㎡의 부지에 항일운동 자료관 1동, 주차장, 산책로, 생활체육공원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전시실에는 지역 항일운동가인 장석전, 임재갑 선생 등의 생생한



독립운동의 기록물과 흉상 등이 전시됐으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전시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항일운동 전시관을 명사심리 해수욕장과 연계

한 역사탐방 순례코스로 발전시켜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북

국제결혼 중개업체들 여성 비하 광고 '눈살'

최근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시골 돈 없는 남성을 위한 이벤트', '총 500만 원 여성 2개월 안에 한국에 귀국', '사랑도 할부로 한다고요', '서비스 성혼만족 100%' 등 광고문구를 차량에 부착한 채 농촌지역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까

지 모두 6건에 8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정진필원을 앓는 한국인 남편에 의한 구타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이면에서 이러한 부도덕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중개업체들은 무등록으로 영업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업체들을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은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진안군은 금과 칠버시범단지내 1300㎡ 면적에서 일본 청주용 4가지 전용품종 시험재배를 위한 손모내기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뉴스 브리핑

도의회,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통과

전북도의회는 최근 제28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북 장애인 가족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전

북도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돌봄 사업,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제관리와 상담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시 내달부터 민간 자본보조금 원가 심사

익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도내 처음으로 민간 자본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원가심사를 실시해 예산낭비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심사대상은 국비와 도·시비를 포함해 3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저온창고 사업과 RPC(미곡 종합처

리장)사업, 버섯보관창고사업, 보육시설 건립사업 등이 해당한다. 시 기술회계담당 부서에서 실거래가격과 자금요청 적정성 여부, 현장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익산시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은 약 250억원에 달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10월 개최

세계의 발효식품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엑스포'가 10월 20~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열린다. 전주발효식품 엑스포조직위는 올해 학술 분야를 대폭 확대한 국제발효컨퍼런스를 비롯해 발효차(茶)산업전, 발효 음식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마련한다. 올해 엑스포에는 18개국 270개 업

체가 참여해 김치와 젓갈, 유제품, 장류 등의 발효 식품을 선보이며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구매 상담을 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말까지 엑스포 조직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성명을 실리는 발효'를 주제로 지난해 열린 이 엑스포에는 연인원 43만 명이 다녀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불량종자에 가격폭락 농업파탄"

농민단체, 정부·지자체에 피해 대책 촉구
농어업용 면세유 연구화 100만 서명키로

전북지역 농민단체들이 농산물 가격하락 대책과 면세유 연구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농민회 전북도 연맹은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소와 소값 하락, 냉해와 불량종자 피해, 생산비 폭등 등에 대한 전북도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농 전북도 연맹은 "정부와 지자체가 불가안정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수입상이나 유통업체만 살찌우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의적인 농업붕괴 정책으로 농업은 완전히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의 물가불안은 재벌에게 유리한 고환율 정책 등 일방적 특혜정책에 따른 것인데도 이에 선제 대응한다는 구실로 생산 농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농민과 농업을 죽이는 수입 농산물 대방출과 수급조절을 당장 중단하고 기초 농산물 정부수매제 같은 기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전북도 연맹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날 오후 순창에서 배추를 갈아엎고 23-25일에는 김제와 정읍에서 밀밭을 갈아엎기로 했으며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연남뉴스

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 연합회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용 유류를 연구해 면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업용 면세 유류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 6월로 다가오며 따라 농어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각종 농기계와 기자재, 선박 등에 사용되는 농어업용 면세 유류 제도가 폐지되면 농축수산물이나 식료품의 가격 폭등은 불 보듯 뻔하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농 전북도 연합회는 중앙연합회와 함께 농어업용 면세 유류의 연구화를 뼈대로 한 조세제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남뉴스

전북 해수욕장 내달 1일부터 개장

전북 서해안 일대의 해수욕장이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다음달 1일부터 차례로 문을 연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9개 해수욕장 가운데 부안 상록해수욕장이 가장 이른 7월 1일(잠정) 모래사장을 개방한다. 이는 지난해 상록 해수욕장이 6월

25일 개장한 것에 비해 1주일 가량 늦은 것이다. 이어 ▲7월 4일 군산 선유도 ▲6일 고창 구시포 ▲7일 고창 동호 해수욕장이 각각 개장하며 9~11일에는 부안 위도와 격포, 고사포, 모항, 변산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공항 내달 1~5일 항공기 운항 중단

한국공항공사 전북지사는 군산공항의 활주로 보수공사로 7월 1일부터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라 매일 군산에서 제주를 1회씩 왕복하는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은 7월 1~5일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전에 운항 일정을 확인해 여행 계획을 세워 달라고 고객들에게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희기자 nogusu@

순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순창군은 매년 8월중 운영했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개월 빠른 6월부터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계획이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순창군 수렵장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패로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